

# 태도적 신체이미지,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

## The Effects of Attitudinal Body Image and Plastic Surgery Attitude on Clothing Behaviors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이 미 숙  
강사 송 경 자\*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t-time Instructor : Mi-sook Lee  
Part-time Instructor : Kyung-ja Song

### Abstract

The study is to find out any significant relations in clothing behaviors according to attitudinal body image and plastic surgery attitude. The sampling method was a convenient sampling, and the subjects were 190 male and 160 female students in Daejeo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20 to July 15, 2008.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frequency analysis, Cronbach's  $\alpha$ , factor analysis, t-test and variance analysis. The subjects who pay much attention to weights and appearances have a positive attitude to plastic surgery. As they concern their body weights and appearance, they have high exhibition of clothing. Those who think their body as being attractive have been more interested in clothing and fashion. The subjects who have positive attitude for plastic surgery are more interested in clothing and fashion, showing higher conformity of clothing.

Key Words : attitudinal body image, plastic surgery attitude, clothing behavior

### I. 서론

현대 사회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고, 그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체형을 회피하게 하고 신체적 건강함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추구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외모 즉, 건강함이 바탕이 되는 날씬한 외모를 선호하고 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생각은 비단 신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자아존중감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체이미지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은 단순히 신체적인 아름다움과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V와 잡

지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것으로 전달되는 날씬한 신체는 보통의 여성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이미지를 이상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며(홍금희, 2006) 이러한 신체 불만족은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cGillivray, Wilson, 1997), 이는 미용성형수술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 성형수술이 수능 선물이라고까지 일컬어질만큼 일반화되어 있고,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또한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미용성형과 의복행동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나 여전히 미용성형 관련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성형관련 연구는 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절실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태도적 신

\* Corresponding author: Kyung-ja Song  
Tel: 042) 542-5193  
E-mail: kjsong900@hanmail.net

체이미지와 성형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의복 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남자도 외모나 패션에 관심이 높아져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 등의 남성패션관련 용어들이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남성전용 외모관리 제품들의 판매도 급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자기만족을 위해 혹은 취업을 위해 미용성형을 많이 하는 만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이미지,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신체이미지, 성형태도, 의복행동에서 남녀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신체이미지는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는 어떠한 신체가 매력적이라는 신체매력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신체적 느낌 및 변화에 좀 더 민감하다(Cash & Cash, 1990).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하주연 등(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많을수록 유행이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독특한 의복차림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타인의 눈을 의식해 그들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유행에 대해 민감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하는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자·김재숙(2005)의 연구에서는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지각할수록 자아개념과 의복과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을 마른 체형이나 비만체형이 아닌 정상체형이라고 지각하는 사람이 의복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또 마른체형을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복동조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주·이정란(2004)의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결과 자신의 체형 중 키와 다리길이가 길다고 인식할수록 의복의 무늬, 질감, 디자인 및 스타일 등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란·이명희(2003)의 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성형요구도와 부적관계를, 의복태도와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성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신체만족도가 높으면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 하

였다. 따라서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은 여성의 외모향 상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광경 등(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외모와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이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였으며, 성적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경자(1999)의 연구결과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이 유행에 관심이 많았으며, 심리적 의존도가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이 의복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에 관심이 높고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성형태도와 의복행동

오늘날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체나 외모 관리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미용성형은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미용성형수술의 근본 목적은 환자의 외모를 향상시키고 환자가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미용성형 수술 환자들은 낮은 자아개념과 열등감, 가벼운 우울증을 자주 경험하였고, 그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주된 동기는 이러한 경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며, 성형수술을 받은 대다수의 환자들은 수술결과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미용성형은 변형수술, 재건수술이 있으며, 변형수술은 코, 눈, 얼굴성형, 점, 흉터제거, 유방확대나 축소, 지방흡입술 등과 같이 환자가 예전에 지니지 않았던 외모를 만드는 수술이며, 미용재건 수술은 주름제거와 같이 환자의 신체를 예전상태로 회복시키는 수술이다(토머스 F. 캐시·토머스 프루진스키, 1990/2000). 미용성형 수술은 병적인 원인이 아닌 정상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 조건을 더욱 아름답게 변형하고 싶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외모를 아름답게 변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두형·장충현, 1994).

연합뉴스("고 3 수험생 이상형은 한가인, 장동건",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 3 수험생 51%가 성형수술을 원하고 있으며, 그 중 74%는 실제로 부모님과 성형에 대해 상의해 보았다고 하였다.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로 는 눈, 코, 안면윤곽 순이었으나 김은주(200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성형 받고 싶은 부위로 얼굴윤곽, 지방흡입, 가슴관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정미실·이금실(2007)의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일수록, 또한 본인의 성형수술사실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을수록 의복의 미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소 눈에 띄더라도 연예인의 옷차림 또는 비싸고 특이한 명품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경자·김재숙(2005)의 연구결과 자신의 신체너비를 실제 크기보다 크게 지각한 사람은 성형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과 신체매력에 관심이 높을수록 성형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란·이명희(2003)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신체만족도는 성형요구도와 부적관계를, 의복태도와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성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여성의 신체부위별 성형요구도 순위는 1위가 점이나 흉터 제거수술, 2위가 치아교정, 3위가 하반신 지방흡입술, 4위가 쌍꺼풀 수술로 나타났다. 의복의 성적 매력성은 20대 여성이 중요시하였으며, 40대 여성은 다른 연령층보다 유행과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신효정(2002)의 연구결과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해 외모결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콤플렉스, 외모에 대한 자신감결여, 화상, 재해로 인한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개성이 없어진다는 평가도 있었으며, 20대 여성은 예뻐지기 위해서는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40대 여성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인품이나 교양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는 수술부작용과 부모님의 반대로 성형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40대 이후 세대는 남편과 자녀들의 영향으로 성형수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로 세대간 차이를 보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태도, 의복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 성별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 성형태도,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 2. 용어의 작업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작업정의를 하였다.

- 1) 태도적 신체이미지 ;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 2) 성형태도 ; 미용성형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 3) 의복행동 ; 의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 대학생으로, 피험자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190명, 여자 160명의 대학생 3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2008년 6월 20일~7월 15일에 이루어졌다.

#### 4. 측정도구의 구성

##### 1) 태도적 신체이미지 측정도구

Cash(1990)의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s) 중 의류학과 강사 및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함께 본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체, 외모, 체중 관련 10문항을 발췌하여 7점 Likert 척도로 제시하였다.

##### 2) 성형태도 측정도구

선행연구(송경자, 2005)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의류학과 강사 및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토의를 거쳐 최근 미용성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5문항을 선정하여 7점 Likert척도로 제시하였다.

##### 3) 의복행동 측정도구

대학생의 의복행동으로 중요하게 제시되는 의복·유행 관심, 동조성, 과시성에 관련된 20문항을 선행연구(송경자, 2003; 이미숙, 2000)에서 발췌하여 7점 Likert척도로 제시하였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

SPSS 14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Cronbach's  $\alpha$ 값을 조사한 결과 MBSRQ .73, 성형태도 .78, 의복행동 .84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4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Cronbach's  $\alpha$ , 요인 축소를 위한 요인분석,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로 '외모관심'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제 3요인은 '나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든다' 등의 2문항으로 '신체 매력'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2. 의복행동 요인분석

의복행동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3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문항들의 누적 설명력은 54.29%였다. 제 1요인은 'TV나 영화를 볼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을 갖고 본다' 등의 10문항으로 '의복·유행관심'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제 2요인은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 입기를 즐긴다' 등의 6문항으로 '동조성'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제 3요인은 '나는 비록 시선을 끈다 해도 독특한 옷 입기를 즐긴다' 등의 4문항으로 '과시성'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태도적 신체이미지 요인분석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3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문항들의 누적 설명력은 73.78%였다. 제 1요인은 '다른 사람이 살찐다는 소리를 하면 내 몸무게가 늘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인다' 등의 4문항으로 '체중관심'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제 2요인은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4문항으로

2.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태도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이미지 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3집단으로 나누고 일원 변량분석을 시행하여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태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성형태도는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체중관심요인, 외모관심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체중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 성형태도 평균이 가장 높아 성형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자신의 체중에 관심이 낮은 사람은 미용성형에

<표 1> 태도적 신체이미지(MBSRQ) 요인분석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설명력
체중관심	다른 사람이 살찐다는 소리를 하면 내 몸무게가 늘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인다	.85	3.60	29.22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84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신경을 쓰게 된다	.82		
	나는 짭식이나 단식으로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다	.81		
외모관심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87	2.60	56.35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83		
	나는 자주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살핀다	.81		
	아침에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루종일 신경이 쓰인다	.73		
신체매력	나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든다	.92	1.18	73.78
	나는 신체적 매력이 있다	.89		

<표 2> 의복행동 요인분석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설명력
의복 · 유행 관심	TV나 영화를 볼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도 관심을 갖고 본다	.81	6.31	31.58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유행에 관한 기사를 흥미있게 본다	.79		
	나는 옷을 꼭 사지 않더라도 옷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76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기분전환을 한다	.76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이 있는가 하고 패션잡지를 자주 본다	.76		
	나는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76		
	마음에 안드는 옷을 입으면 외출하기 싫어진다	.68		
	나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한다	.67		
	내가 입은 옷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곤 한다	.60		
	나는 입어서 기분이 좋은 옷을 자주 입게 된다	.55		
동조성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 입기를 즐긴다	.79	3.18	47.44
	나는 친구들이 흔히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선택한다	.73		
	친구들이 새 옷을 입으면 나도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마련하고 싶다	.72		
	모임에 갔을때 내 옷이 친구들과 다르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68		
	친구들과 같은 옷을 입었을때 더욱 그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67		
	나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다	.59		
과시성	나는 비록 시선을 끈다 해도 독특한 옷 입기를 즐긴다	.77	1.37	54.29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이면 눈에 띄는 옷을 선택한다	.71		
	나는 평범한 옷은 개성이 없어 보여서 안 입는다.	.70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67		

\* 역코딩 문항

<표 3>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태도

(N=350)

태도적 신체이미지		성형태도	M	SD	F
체중관심	낮은집단(24%)		-.59a	.85	25.31***
	보통집단(56%)		.11b	.93	
	높은집단(20%)		.41c	1.04	
외모관심	낮은집단(24%)		-.64a	.92	28.19***
	보통집단(56%)		.12b	.07	
	높은집단(20%)		.41c	.11	
신체매력	낮은집단(16%)		.23a	1.03	2.86
	보통집단(65%)		.00ab	.99	
	높은집단(19%)		-.20b	1.00	

표에 제시된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에 의한 집단 구분임

\*\*\* p< 0.001 수준에서 유의함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높은 집단의 성형태도 점수가 가장 높아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보통이거나 낮은 집단에 비해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신의 체중과 외모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성형을 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체중과 신체매

력에 관심이 높을수록 성형욕구가 크다는 송경자·김재숙(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평균비교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매력이 높다고 여기는 집단은 신체매력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성형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성형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만족도와 성형요

구도가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전경란·이명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신체이미지 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3집단으로 나누고 일원 변량분석을 시행하여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와 같이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외모관심요인, 신체매력요인에 따라 의복·유행관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행동의 과시성요인에서는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체중관심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유행관심요인에서는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 보통이거나 낮은 집단에 비해 의복과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자신의 신체가 매력있다고 여기는 집단은 보통이거나 매력없다고 여기는 집단에 비해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높을수록 유행이나 의복에 관심이 높다는 하주연 등(2005), 전경란·이명희(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의복행동 중 동조성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평균비교에서 자신의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이 동조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신체가 매력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또래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성 요인에서는 자신의 체중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 보통이거나 관심이 적은 집단에 비해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와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한다는 김광경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높을수록 독특한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하주연 등(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4.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성형태도 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3집단으로 나누고 일원 변량분석을 시행하여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성형태도에 따라서는 의복행동의 의복·유행관심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동조성과 과시성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형태도 점수가 높은 집단 즉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이 의복·유행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일 수록 의복에 관심이 많고,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성형수술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의복의 미적추진을 중요시한다는 정미실·이금실(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반면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은 성형에 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N=350)

태도적신체이미지		의복행동		동조성		과시성	
		M	SD	M	SD	M	SD
체중관심	낮은집단(24%)	.60	.99	-.16a	1.03	-.34a	1.07
	보통집단(56%)	-.20	.98	-.00ab	.93	-.03b	.92
	높은집단(20%)	-.30	1.07	.21b	1.13	.49c	.95
F		.20		2.62		13.99***	
외모관심	낮은집단(24%)	-.94a	.09	-.11	.97	-.25a	.96
	보통집단(56%)	.14b	.60	.07	.95	.02ab	.98
	높은집단(20%)	.79c	.10	-.09	1.17	.26c	1.06
F		91.54***		1.29		5.04**	
신체매력	낮은집단(16%)	-.34a	1.07	-.16a	1.03	.06	.99
	보통집단(65%)	-.03b	.92	-.00ab	.93	-.02	.98
	높은집단(19%)	.49c	.95	.21b	1.13	-.03	1.07
F		13.99***		.074		.82	

표에 제시된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에 의한 집단 구분임  
\*\*\* p< 0.001, \*\* p<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5>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

(N=350)

성형태도	의복행동	의복·유행관심		동조성		과시성	
		M	SD	M	SD	M	SD
낮은집단(21%)		-.54a	1.03	-.33a	1.04	-.10a	.96
보통집단(59%)		.00b	.95	.05b	.91	-.02a	1.01
높은집단(20%)		.56c	.81	.19b	1.15	.18a	1.01
F		24.20***		5.48**		1.50	

표에 제시된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에 의한 집단 구분임  
 \*\*\* p< 0.001, \*\* p< 0.01 수준에서 유의함

5. 성별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 성형태도

성별에 따라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성형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라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3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체중관심 요인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자신의 체중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는 항상 비만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모관심 요인에서는 여자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자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 매력요인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평균점수가 높아 남자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여자보다 만족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신체가 매력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자는 체중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반면 자신의 신체에는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형에 대한 태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기회가 주어지면 자

신의 결점으로 여기는 부위에 대해 성형을 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아름다움에 관련된 미용성형수술은 아직도 남자보다는 여자와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남자가 자신의 신체를 매력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6. 성별에 따른 의복행동

성별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남자보다 여자가 의복이나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는 TV나 영화를 볼 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에 관심을 갖고 보며,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유행관련 기사도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의복행동중 동조성과 과시성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최근에는 여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남자도 패션관심도가 높아져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입었는지, 또 최근 유행경향은 어떠한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 성별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 성형태도

(N=350)

종속 변인		성별	M	SD	t
태도적 신체 이미지	체중 관심	남자	-.40	.96	-8.97***
		여자	.47	.83	
	외모 관심	남자	-.14	1.09	-2.80**
		여자	.16	.86	
	신체 매력	남자	.10	1.01	2.08*
		여자	-.12	.98	
성형태도		남자	-.28	.95	-6.00***
		여자	.33	.95	

\*\*\* p< 0.001, \*\* p< 0.01, \* p<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7> 성별에 따른 의복행동

(N=350)

의복행동	성별	M	SD	t
의복 유행관심	남자	-.37	1.01	-8.22***
	여자	.44	.79	
동조성	남자	-.07	1.06	-1.35
	여자	.08	.93	
과시성	남자	.03	1.03	.70
	여자	-.04	.97	

\*\*\* p< 0.001 수준에서 유의함

## V.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태도적 신체 이미지, 성형태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요인분석 결과 체중관심요인, 외모관심요인, 신체매력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의복행동의 요인분석 결과 의복·유행관심요인, 동조성요인, 과시성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태도에서, 체중과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매력이 높다고 여길수록 성형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태도적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또 자신의 신체가 매력 있다고 여길수록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또 자신의 신체가 매력 있다고 여길수록 동조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형태도에 따른 의복행동에서는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의복에 관심이 많고,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에도 관심이 많으며 자신이 속한 동료집단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자신의 체중과 외모에 관심이 높았으며,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의복이나 유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좀 더 매력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형태도와 의복행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패션 업체뿐만 아니라 미용성형관련 의료 분야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연구에서는 체중과 외모에 관심이 가장 큰 연령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양한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들을 시험하고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의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성형태도 및 의복행동을 연구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태도적 신체이미지, 성형태도, 의복행동

## 참고 문헌

- 고 3 수험생 이상형은 한가인, 장동건(2008. 12. 15)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08. 12. 25. 자료출처 <http://news.hankooki.com/1page/society/200812/h2008121510525821950.htm>
- 김광경·이금실·정미실(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경자·김재숙(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다중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391-402.
- 송경자(2003) Spider-gram을 이용한 신체이미지 측정 및 평가, -여성의 성형욕구·자아개념·의복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경자(1999)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태도적, 지각적 신체이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효정(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화장, 헤어스타일, 신체이미지, 성형수술, 의복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이두형·장충현(1994)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조사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77, 1137-1147.
- 이미숙(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경란·이명희(2003)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향상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6), 643-653.
- 정미실·이금실(2007)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7), 131-140.
- 조윤주·이정란(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262-269.
- 토머스 F. 캐시·토머스 프루진스키(1990) 바디이미지, 임숙자·이미현·이승희·신효정 옮김(2000) 교문사.
- 하주연·고애란·정미실(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 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715-726.
- 홍금희(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2), 348-357.
- Cash, T. & Cash, E.(1990) Body weight and body image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4, 290-301.



- 
- Cash, T.(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Thomson, J. K.). Pergamon Press.
- MacGillivray, M .S. & Wilson, J. D.(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5(1), 43-50.
- (2009. 1. 3 접수; 2009. 3. 23 채택)